

기본급 142,300원 인상!
퇴직한 년도 노동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 보장!
지부 재정자립기금 현실화!



지부교섭 속보

8호

2022.06.17(금)

■발행처:교육선전부 ■발행인:박종우 ■주소: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■전화:043-236-5077 ■http://dc.kmwu.kr

[8차 지부교섭_ 제시안 없음]

의지도 없는 사측 교섭위원!



빈손 교섭

16일(목) 14시 30분 이택에서 열린 8차 지부교섭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측으로 인해 고작 3분 만에 끝났다.

지난 주 7차 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이 나왔지만, 논의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이었다. [추후 제시], [현재 관행 유지] 같은 하나만한 내용들 뿐이었다. 사측이 지부교섭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이번 주 8차 교섭에서는 진전된 내용을 제시했어야 한다. 그러나 사측 교섭위원들은 빈손으로 교섭 자리에 앉았다. 진지하게 교섭을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.

7월 총파업 투쟁 예년과 다르다!

지부교섭이 이렇게 난항을 겪으면 투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. 올해 금속노조는 노정교섭 생취와 사업장 임단투 승리를 위해 7월 총파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. 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파업투쟁을 통해 임단투 승리는 물론, 정부를 직접 상대하는 노정교섭도 생취할 계획이다. 투쟁 수위가 예년보다 강할 수밖에 없다. 지부교섭이 지금 같은 수준에서 진행된다면 투쟁수위는 더 높아진다. 사용자들이 지부교섭을 성실하게 해야 원만한 타결이 가능하다. 사용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.

8차 교섭 속기록

제시안도 없이 무슨 교섭?

사 : 특장차 전문 제조회사인 이텍에 방문해주신 것 환영한다. 노사간 양보, 협력해서 잘 논의했으면 한다.

노 : 화물연대 파업이 타결되었다. 모든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었겠지만, JCC도 큰 어려움 겪었다는 것 보고받았다. 그래도 화물연대 교섭이 잘 타결돼서 사업장이 멈추는 일은 없었다. 오늘 교섭에서 성실한 제시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. 사측 교섭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했으면 제시안 제출해달라. 화물연대 교섭처럼 지부도 빠르게 교섭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.

사 : 안을 준비하려고 사전에 토의를 많이 했다. 지난주에도 논의를 했고 3차 안을 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. 그런데 신규 사업장도 있고, 통일요구안 관련해서 다르게 내용을 전개한 회사도 있어서 의견 조율이 여의치 않았다.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.

노 : 제시안도 없으면 특별히 얘기할 것 없을 것 같다. 교섭 끝내자.

〈6/16(목) 교섭위원 공동실천〉 이텍네트웍스 / 이텍산업 현장순회

